

2021 WSET 아카데미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참여기관 모집 공고

- 재직자 편 -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이공계 진로·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및 과학기술분야 산학연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'찾아가는 맞춤형 교육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「2021 WSET아카데미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」에 참가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목적 : 과학기술분야 여성인재 유입-양성-활용-성장 선순환 체계마련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

2. 내용

(1) 교육대상 : 조직 내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산·학·연 재직 여성과학기술인
※ 신청 시 **최소 교육생 20명 이상**, 과학기술인 여성비율 50%이상 참석 필요

(2) 지원내용 : WSET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 **전문강사 연계 및 강사비 지원**
※ 기관의 수요에 따라 연간 상시로 맞춤형 **과정 설계, 컨설팅 등 가능**

(3) 운영기간 : (신청/접수) 2021.02.01. ~ 2021.11.30. (추천/연계) ~2021.12.10.
※ 강사비 지원의 경우, 2021.11.30.까지 신청 가능하나, 예산 소진 시 접수 종료함.

3. (기관) 온라인 신청

(1) **W-브릿지 (<https://www.wbridge.or.kr>) 교육 신청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**

- W브릿지 접속 > 교육 >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> 우측 하단 재직자 교육 신청하기



(2) 문의 :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사업운영실 아카데미팀 담당자

(과학기술분야 산·학·연 기관) TEL: 02-6411-1024 E-Mail: jhlee@wiset.or.kr

4. 프로그램 : 과학융합트렌드, 리더십(여성, 조직), 조직진단 및 솔루션 80개 이상 보유

NO	구분	주요 프로그램(일부 발췌)
1	과학융합 트렌드	VR+AR=MR
		COVID-19 이후,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
		현대미술 인사이트, 나를 만나는 시간
		드론, 새로운 세상을 만들다
2	리더십(조직)	나는 무조건 성과 나는 프로젝트를 한다
		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(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학습)
		성공적인 조직생활을 위한 3P관리 & 셀프 리더십
		READY & ACTION (올바른경력설계및셀프마케팅)
3	리더십(여성)	미라클 GI(남녀평등지수)와 글로벌 여성 리더십
		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한 여과기인에게 : 갈등고리를 끊자
		자존감 수업 : 마음근육 기르기
		원하는 것을 이루는 마인드셋의 비밀
4	비즈니스(사업화)	일 잘하는 사람은 1페이지로 말합니다.
		연구 제안서 작성, 어떻게 시작하죠?
		선행 기술분석 기반 사업기획 전략
		마케팅 전문가에게 듣는 시장진입 솔루션
5	조직소통	DIVERSITY & INCLUSION(다양성과 포용)
		조직소통 챌린지 :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
		성별특성인식교육-GI(성별이해지능)
		소통과 침묵, 매력있는 중간관리자 되기

5. 수강생 후기

구분	주제	재직자
1	Self leadershi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기관 담당자가 참고해야 할 자질과 소양, 여성리더로서의 경험과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듣고 새기게 됨. - 유익한 내용으로 여성으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성공 전략 관점을 알 수 있었음
2	성별 이해기반 리더십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직 내 여성인력으로 고민되던 부분에서 다양한 사례 나눔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, 남녀 직원이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음.
3	조직소통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직에 유연성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음, 온라인 강의였지만 적절한 액티비티와 동영상 자료가 제공되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음. - 본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, 방어기재를 개선하면 직장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될 것 기대됨
4	과학융합 트렌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작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과거부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고, 경험 및 사례를 적절히 서술하시면서 진행해 주셨던 점이 인상깊고 좋았음.